

도내 주요 기업 가동중단 · 매각철회수설 잇따라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도

최근 전북지역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뒤 도내 굵직한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거나 매각설, 철회수설 등에 휘말리고 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 등지를 뜬 기업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민간기업보다도 전북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까지 발생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1. 전주시 팔복동 BYC 전문매장
2. 익산에 위치한 넥솔론
3. 하이트 전주공장 전경
4.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넥솔론·BYC·하이트·한국GM 위기...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6월 30일을 기해 가동이 중단된 이후 익산 넥솔론과 전주 BYC, 완주 하이트진로, 한국GM 군산공장 등의 경영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먼저 익산 넥솔론은 생산가동이 중단됐다. 넥솔론은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태양광 기업으로 익산수출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우량기업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시장의 변화로 지난 2011년부터 손실을 기록하는 등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2015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진행된 매각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로 인해 400여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현재 전북도와 익산시, 지역 정치권 등에서 넥솔론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BYC 전주공장 또한 폐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폐쇄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개로 예상된다.

BYC는 전주공장의 기능(업무)을 인도네시아 공장과 통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이 역시 넥솔론과 마찬가지로 해외 SPA 브랜드 진입, 저가브랜드 출현, 소비 패턴 변화 등 시장 변화로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완주에 있는 하이트 전주공장은 매각설에 휩싸였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생산 효율화를 위해 공장 한 곳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

는데 하이트진로의 맥주 생산라인이 있는 곳은 전주공장을 비롯해 흥천·마산 등 3곳이다. 당초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매각과 관련한 공시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보류하면서 당분간 전주공장 매각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주공장의 매각설은 하이트진로를 향토기업으로 생각하는 완주군민과 전북도민에게 큰 걱정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도 산업은행이 위기상황으로 진단을 내리고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소멸되면서 철회수설에 휘말렸다.

실제 산업은행은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를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

또 한국GM의 버팀목이 됐던 비토권이 소멸됐다.

비토권은 GM이 지난 2002년 10월 대우차를 인수할 당시 채권단 대표로 출자한 산업은행이 향후 15년 동안 한국지엠의 지분 매각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토권이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권리가 끝나 GM이 한국GM 지분 매각과 함께 한국시장 철수를 추진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현재 군산공장은 준중형 세단 '올 뉴 크루즈'와 7인승 MPV '올란도'를 생산하고 있지만, 최근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 극복 대안 없어... 전전긍긍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위기를 극복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전주 BYC · 익산 넥솔론 등 경영난 수면 위로

태양광 기업 넥솔론, 생산가동 중단 BYC 전주공장, 내년개 폐쇄될 듯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매각설 지속화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철회수설 휘말려

도·정치권, 위기극복대책 마련 고심 민간기업에 적극 개입 어려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아

하기위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이지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사기업(민간기업)이다보니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경제 위기설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시장성이 떨어지고 경영난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기업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야 하지만 솔직히 대책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경우 큰 기업들의 본사가 여기에 없다보니 구조조정, 노사문제, 경영난 등의 사태가 일어날때마다 피해가 발생하는 데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상황에 따라 문을 닫거나 운영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식품바이오, 탄소를 필두로 하는 미래 관심

소재 부분에 대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신규 R&D지원 기업 발굴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관련 중소기업 육성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안은 없이 질타만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전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렇다 할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고즈넉한 여유가 있는 명품 한옥으로 떠나는 '가을 힐링 여행'

잠이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컨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컨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칭이 공평하다 훈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맛이 느껴집니다. 코끝에 닿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남원시